

일한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 보도자료
(2025년 8월 23일, 도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에 실무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내각총리대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파트너인 일한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 인식 공유의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2주 후 캐나다에서 최초의 일한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다시 일한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했습니다.

(2) 양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변화와 최근 몇 년간의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안보·경제 안보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할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양 정상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3. 인적 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일한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일한 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한 워킹 홀리데이 참가 횟수 상한을 기존의 생애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된 일한 간 입국심사 우선레인의 운용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의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미한 협력을 토대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5. 지역 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굳건한 일한, 일미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일한 관계의 발전이 일한미 협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양 정상은 국제 사회의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올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한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